

지역 소식 통

부안 개암동 벚꽃축제

산불 재난 고려 축소 개최

부안군 대표 봄꽃 축제인 제7회 개암동 벚꽃축제가 오는 4월 4~6일까지 개최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인 산불 재난을 고려해 주요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상서개암동벚꽃축제추진위원회는 당초 개회식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했으나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긴급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축소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동안 벚꽃 관람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기현 벚꽃축제추진위원장은 "개암동은 산과 인접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농촌마을

화재예방대책 본격 추진

고창소방서는 2025년 농촌마을을 화재 예방을 위해 고창군 전역에서 화재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 7분 도착률이 20% 미만인 심원면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담당제'를 운영해 아와 소각 행위를 자체화도로 권고하고,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을 즉시 계도하며, 들불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 14개 읍·면에 설치된 세대 방송 수신기 510개를 활용해 화재 예방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14개 읍·면사무소에서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안전 당부 전화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화재 예방을 안내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화재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산불 취약지역 선제 대응

정읍시, “청명·한식은 성묘객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 행정력 집중할 것”

정읍시가 청명(4월 4일), 한식(4월 5일)을 앞두고 성묘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31일 영상 간부회의를 통해 “청명과 한식은 성묘객이 늘어나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읍면동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인화물질 관리, 입산자 통제, 주민 안내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산불 예방 기간 동안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적극행정 지속·일관 실천 중요”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 “행사 안전·산불 위기 대응”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적극행정 실천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31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부안군이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모든 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실천이 중요하다”며 “청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4월은 민민의 날과 벚꽃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집중된



시기”라며 “행사 전후로 시설물 민원 사항 등의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북특자도 역시 야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행사장 주변 산불 위험요소 사전 점검,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비상 연락망 유지 등 행사 안전과 산불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최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치유관광산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갯벌, 노을, 해안, 산림 등 부안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생태 기반을 활용한 복합형 치유관광 사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평가 도내 유일 4년 연속 우수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2020·2022·2023·2024) 우수기관의 자리를 지켰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 안함)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이행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총 5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함께 심사했다. 평가 상위 30%(인 광역 5곳과 기초자치단체 68곳



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적극행정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과 공무원 행정 공무원 보호와 사례 홍보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

산시키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기관장의 추진력과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렴정책 일타강사 나섰다

심덕섭 고창군수 직강,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심덕섭 고창군수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정책의 일타강사로 나섰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목표로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직접 주재하여 2025년 고창군의 반부패 청렴 정책 및 추진 목표를 전 직원과 공유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의 명성을 유지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고창 실현이라는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소개, 2024년도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중점 추진사항 및 각 부서별 협조사항, 군 부패취약분야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주요정책 부패위험



성 사전진단제 △군민행복 민원상담사 등 군민 권익보호 제도 △부서별 청렴시책 발굴 △소극행정 근절 등을 중점 업무로 추진하며 ‘청렴정착·부패차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군민이 느끼는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청렴교육 확대는 물론 청렴 컨설팅과 우수사례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사회에서의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5 한 권의 책’ 선포… 독서 릴레이 시작

정읍시가 지난 29일 시립중앙도서관에서 ‘2025 한 권의 책’ 선포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서 릴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선정된 ‘한 권의 책’은 대상별 △일일대상 도서 작은 빛을 따라서(권여름) △청소년 대상 고요한 우연(김수진) △어린이 대상 사과를 그리 는 100가지 방법(박이도) 총 세 권이다.

선포식은 풍선아트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이어서 대상별 선정 도서가 발표됐다. 대표도서로 선정된 작은 빛을 따라서의 저자 권여름 작가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작품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정읍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장산 입구 필성슈퍼를 운영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의 빛을 따라가는 삶의 변화를 그린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배경과 감정이 녹아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풍선아트 공연 후, 어린이 대상 도서와 연계한 책놀이 체험 ‘뽕뽕 책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돼 아이들에게 즐거운 독서 체험을 선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정읍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용료 감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다뤘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유호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실효성과 공익성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까지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토지·건물의 취득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월 열리는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의 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